

石門 鄭榮邦의 園林과 文學*

신 두 환**

< 目 次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석문 정영방의 원림과 시세계 |
| II. 시대적 배경과 석문 정영방의 생애 | V. 결론 |
| III. 석문 정영방의 문학범주 | |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石門 鄭榮邦(1577년 ~ 1650년)의 원림과 문학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선조시대의 임진왜란, 광해군 시대의 亂政과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조선 역사의 대 혼란기였다. 石門 鄭榮邦은 당대 성리학을 공부했던 영남의 유명한 학자로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원림을 경영하며 강호가도를 추구했던 고결한 학자였다. 石門 鄭榮邦은 어지러운 세상을 벗어나 자연의 진경에 몰입하여 강호의 경치를 구가하면서 성리학의 도를 추구하려는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가 병자호란을 피해 영양 임천으로 은거하여 원림을 조성하고 축조한 서석지는 문학과 예술을 함의 시킨 위대한 유가의 정원이자 원림의 보고이다. 이 서석지는 우리나라 사대부들의 원림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원림은 정자를 향하고 정자는 그 원림을 끌어들이며 편액과 기둥의 글귀들은 그가 추구하는 도를 표방하게 된다.

* “이 논문은 안동대학교 기본연구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Email: ilovestudent@hanmail.net

그의 원림의 세계에는 성리학의 이상세계가 들어 있고, 학문에 대한 애정이 들어 있으며, 수기치인의 반성과 수양의 미학이 들어 있었다. 서석지의 자연석에 기이한 형상들을 유추해 내는 그의 시각에는 심미적인 감수성이 넘쳐나며, 서석군의 형상미를 창출한 미의식에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쳐난다.

석문 정영방의 문학은 강호가도가 주를 이룬다. 그의 詩는 470여 수나 되고 文은 18편인데 문장은 贍麗하여 읊을 만하며, 특히 그의 사부는 초사의 형식을 함의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향토적 소재로 지어진 특이한 문체이다. 그의 <정과 정곡>에 대한 민족문화적 견해는 우리 문학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해 준다. 그의 詩는 더욱 淸絶하여 격조가 있었다. 그의 시는 唐詩의 경지에 나아갔으며, 운율이나 氣勢 같은 말단에 힘쓰지 아니했다. 그의 시는 宋나라 詩風이 스며있으면서도 사실에 얽매이는 누습에 빠지는 일은 없었다. 그의 오언절구는 훌륭하여 康樂 謝靈運과 長吉 李賀의 風致가 있다. 그가 완상한 것은 석문의 빼어난 자연경관에서 감발한 것이며, 그의 풍자는 석문의 風泉과 서로 和答한 것이다. 석문의 원림과 문학에는 성리학의 미의식이 앙금처럼 녹아서 영롱한 미를 발산해내고 있다.

【주제어】 석문 정영방, 서석지, 원림, 문학, 성리학.

I. 문제의 제기

조선건국부터 토지와 권력으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농단해오던 훈구파들은 더욱 부와 권력을 위해 기승을 부리고, 유교적인 이상사회를 꿈꾸며 경전의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강하게 실천하려는 의지로 충만한 사림파들은 그들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훈구파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 첨예한 대립은 치열하고 잔인한 사회를 일으켰다. 그때마다 훈구파들의 농단으로 사림파가 무참하게 화를 당하였다. 이 시기를 틈타 사림의 세계에서는 자연에 묻히고 산수 간에 처하여 심성을 수양하고 후진을 양성시키려는 은둔의 풍조가 유행하였다. 이로 인해 곳곳에 많은 서원과 누정들이 생성

되기 시작하면서 성리학적 원림의 조성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도남 조윤제 선생은 이 시기를 평하여 “이 시대의 작가 중에는 사화로 어지러워진 세상을 벗어나 자연의 진경에 몰입하여 강호의 경치에 묻혀 지내려는 새로운 작가 군이 일어나고 있어 이 시대를 ‘자연미의 발견시대’라고도 했다.¹⁾ 조선시대 도학자들의 자연 예찬은 조선시대 詩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학현상을 조윤제는 문예사조로 파악해 ‘강호가도’라 부르고, 그 내용을 ‘자연미의 발견’이라 규정하였으며, 강호가도의 형성 원인을 조선시대 사대부 층의 정치상과 생활상에서 파악하였다.

石門 鄭榮邦(1577~1650)이 살았던 시기는, 선조시대의 임진왜란, 광해군 시대의 亂政과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조선 역사의 대 혼란기였다. 이 혼란의 시대는 한국의 주자학이 최고도로 발달한 시기이고 성리학이 절정에 이른 시기이기도 하다. 石門 鄭榮邦, 그 또한 이 시대를 점유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벗어나 자연의 진경에 몰입하여 강호의 경치를 구가하면서 성리학의 도를 추구하려는 새로운 사림 중의 한 사람이었다. 정영방도 자연미를 발견하려 산천을 찾아 헤매며 정자를 마련하고 원림을 경영하기에 이르렀다. 선대의 강호가도를 구가한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의 뒤를 이어 石門 鄭榮邦도 자연에 묻혀 영남학맥의 강호가도를 이었다. 앞 시대에 퇴계와 그 제자들이 주자의 무이산 산수를 모방하여 조선의 산수에서 구곡과 26명의 자연미를 발견해 내며 강호가도를 구가 하였듯이 정영방도 그 뒤를 이어 정자와 원림을 조성하고 『주자대전』과 『퇴계선생문집』을 읽으며 강호가도를 구가하기에 이르렀다.

石門 鄭榮邦이 병자호란을 피해 강호가도를 추구하며 축조한 ‘瑞石池’에는 성리학의 오묘한 이치가 함의되어 미를 발산하고 있다. 石門 鄭榮邦은 당대 성리학을 공부했던 영남의 유명한 학자로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원림을 경영하며 강호가도를 추구했던 고결한 학자였다. 그의 문집에는 주옥같은 시편들이 470여 편이나 실려 있고, 산문은 18편이 실려 있다.

1) 조윤제, 『조선시대가사강』, 동광당서점, 1939, pp.232-235.

정영방의 원림과 문학은 이미 영조대에 <여지도서>를 만드는데 사료로 사용될 정도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 문학사에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석사 논문 1편과 서석지의 정원구조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²⁾ 그 연구들마저도 석문 정영방의 원림과 문학에 대한 특출한 미의식을 감지해 내는 논문은 없어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들 논문들을 바탕으로 원림과 문학세계에 대한 심화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의 원림과 문학세계에 대하여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석문 정영방의 시대적 배경과 생애

鄭榮邦(1577~1650)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이다. 자는 경보(慶輔), 호는 석문(石門), 본관은 東萊이다. 그의 집안은 고려시대부터 본 조선에 이르기까지 명문대가로 대를 이어온 집안이었다. 그의 상계는 고려조의 문신으로 유명한 鄭穆(1040, 정종6~1105, 숙종10)으로 시로서 명성이 있었고, 예부시랑을 거친 문단의 거목이었다.

2) 민경현, 「서석지를 중심으로 한 석문 임천정원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1권 1호, 한국전통조경학회, 1982, p.4.

김동훈, 김용기, 김두규, 「瑞石池園의 造營背景과 空間構成에 關한 研究」, 『한국정원학회지』 제21권 제4호(통권 제46호), 한국정원학회, 2003.

유정훈, 「석문 정영방의 문학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재남, 「石門 鄭榮邦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vol.10, 한국한시학회 2006. pp.41

洪在然, 「壬辰遭變事蹟考」, 『인문과학연구』 제1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98.

길승호, 양병이, 「영양 서석지원(瑞石池園)의 경관요소를 통한 외원 규모 추정 및 프랙탈 구조(Fractal Structure)」, 『한국조경학회지』 제41권 5호, 한국조경학회, 2013, pp.57-67.

그의 고조 鄭渙(1455, 세조1~1506, 연산군12)은 예천 풍양면 청곡리 浦內에서 태어났다. 1480년(성종 11) 진사시에 합격, 1489년(성종 20) 식년 문과에 병과 22위로 급제하여 成均館學諭, 博士를 거쳐 司憲府監察(1495)이 되었다. 그 또한 문장으로서 이름을 떨쳤고 千秋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홍문관부교리(1501), 사헌부 장령(1504) 등을 지냈다. 그 후 홍문관 부응교로서 연산군의 혼정을 직간하다가 갑자사화에 휘말려 상주로 유배되었다. 1506년(연산군 12)에 병으로 유배지에서 죽었다. 그 해 중종이 즉위하여 그가 죽은 줄도 모르고 홍문관 교리(1506)를 제수하였다. 이 이후 후손들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꺼렸다.

중종의 휘는 允喬로 성균관 생원이요, 조부의 휘는 元忠으로 성균관 진사이다. 아버님의 휘는 湜이요, 어머니는 안동 권씨로 참봉 濟世의 따님이다. 두 분 사이에서 공은 정영방은 1577(宣祖10)년 경상도 용궁현 포내리 [현재의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데가 있어 여러 어른들이 모두 원대한 기대를 했으나 5세에 아버님을 여의고 1590년(14세)에 양자가 되어 송촌으로 이주했다. 종조부 元健의 후손인 澡의 뒤를 이었으며, 그 어머니는 진성이씨이다. 부인은 전주 柳氏이며 증도승지 復起의 따님으로 군자의 덕을 어김이 없는 분이였다.

양자의 문제는 석문 정영방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이것은 친형제 사이의 이별의 문제가 야기되는 큰 문제에 부딪힌다. 이것이 후에 친형제 동기간의 깊은 우애로 연결되며 실제 정영방은 형제간의 우애가 남달랐다.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이를 계기로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그의 유년기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 가족과 상속, 혈통, 가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엄격한 유교의 윤리질서를 배우면서 성장하였을 것이다.

石門 鄭榮邦의 소년기는 우리시대 성리학이 최고도로 발달해 가던 시기이다. 1543년 중종시기 『주자대전』의 간행은 조선의 문풍을 변화시켰으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맴돌기만 하던 성리학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했다. 이 시기는 성리학이 최고도로 발달했던 시기로 퇴계와 율곡을 배출

하였고, 많은 학자들이 주자학과 자연미의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성리학이 무르익었던 시기이다.

이시기에 영남의 학맥은 퇴계를 이은 약봉 김극일, 월천 조목, 서애 유성룡, 학봉 김성일, 송암 권호문, 백담 구봉령, 우복 정경세, 경당 장흥효, 이어서 석계 이시명, 번곡 권창업 석문 정영방 등이 성장하고 있었다. 이때 성리학자들은 은거를 택하여 강호가도를 구가하며 자연에 몰입하는 학자들이 늘어가던 때이다. 이시기에는 가슴에 훌륭한 지식을 품고도 자연을 벗하며 출사하지 않는 선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정영방은 가정에서 유교적인 기초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으나, 본격적인 학문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학문에 매진해야 될 시기에 임진왜란(1592, 16세)이 일어났다. 그의 「壬辰遭變事蹟」에는 임진왜란의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특히 거기에는 정영방의 형수와 누님이 왜놈들을 피해 산으로 들어갔다가 왜놈들의 추적에 화를 면하기 위하여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가슴아파하는 장면을 서술한 부분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³⁾ 석문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상처를 크게 입었으며, 이런 아픈 기억들 때문에 학문에 임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599년(23세) 愚伏 鄭經世가 관직에서 물러나 상주 愚谷山中에서 학문을 가르칠 때 공은 남보다 먼저 나아가 유학을 하여 수제자로 中庸, 大學, 心經을 전수 받았다. 정영방은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고찰하여 옛 성현의 意向을 깊이 터득하였다. 성현 말씀의 表裏와 다른 사람 문집의 다르고 같음을 반복하여 論하고 바로잡아 꼭 맞게 합치되지 않음이 없게 된 뒤에야 책을 덮었다. 愚伏이 매우 감탄하여 칭찬하고는 한참 뒤에 말하기를 “무릇 학문이란 끝까지 연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비록 목숨을 다하여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다 하여도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진취적인 까닭만을 아날 것이니 그대의 기량과 식견을 볼 때 어찌 이루지 못한다고 근심하겠는가. 다만 소홀하지도 말고 조장하지 않

3) 『석문선생문집』, 권4, 「壬辰遭變事蹟」. 참조.

도록 하는데 힘쓰라.”고 했다. 이어서 시를 지어주며 ‘꽃과 버들은 무엇으로 하여금 질푸르게 하고 무엇으로 하여금 붉게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것들은 모두 그가 비상하게 노력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때 지은 시가 『우복집』에 전한다.

『鄭生榮邦來訪以詩相贈次韻答之(鄭榮邦이 찾아와 시를 지어 주기에 그 시에 차운하여 답하다.)』

山幾縈紆水幾重	산은 몇 봉우리고 물은 몇 구비인가
多情來到寂寥中	다정한 사람 적막한 산중에 찾아왔네
明知五夜懸燈話	밤새도록 나눈 대화 분명하게 알리라
絕勝三年數墨功	내 삼년 공부보다 더 낫다는 걸
只怕吾心澄不定	다만 내 맘 맑지 못한 것이 두려우니
休言此道遠難通	길이 멀어 통하기 어렵다 말을 마시게
從君試問花兼柳	그대에게 꽃과 버들 시험 삼아 묻노니
孰使青青孰使紅 ⁴⁾	누가 푸르게 하고 누가 붉게 하였는고

우복 정경세는 산 넘고 물 건너 먼 길을 찾아온 정영방을 반갑게 맞으며 밤새 학문을 논했다. 우복은 ‘정영방과 나눈 하룻밤 대화가 자기의 삼년 공부보다 낫다’라고 표현 하였다. 이것은 주자가 편찬한 『二程全書』 권22상(上) 〈伊川語錄〉에 “고인이 ‘그대와 함께 하룻밤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10년 동안 독서한 것보다도 낫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만약 하루 동안에 얻는 것이 있다면 어찌 10년 동안 독서한 것보다 나은 정도일 뿐이겠는가. [古人有言曰 共君一夜話 勝讀十年書 若一日有所得 何止勝讀十年書也]”라는 말이 나온다. 우복은 이 말을 인용하여 시 속에 형상화시켰다. 이것은 석문 정영방의 뛰어난 재주와 그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하였던 것을 비유한 것이다.

정영방은 생가와 養家의 어머니가 다 계시기에 매양 몇 달에 한 번씩

4) 鄭經世, 『愚伏先生文集』, 卷之一, 詩, <鄭生榮邦來訪 以詩相贈 次韻答之>.

돌아가 아침저녁 문안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단정히 방에 앉아 종일토록 책상을 대하여 공부를 하였다. 집안이 가난하나 마음에 두지 않았고 생활이 늘 어려웠으나 편안하게 지냈다.

27세(1603) 5월, 큰아들 焜이 태어난다. 후계의 문제로 양자를 갔던 터라, 정영방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것 같다.

29세(1605)에 이르러서야 成均進士가 되니 주위에서 성균관에 들어가 大科를 준비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스스로 벼슬에 나아갈 뜻을 끊고 오로지 학업에 정진하기를 더했다.

정영방은 젊었을 때는 술을 좋아해서 가까이 했으나 우복이 경계하여 끝내 끊었으며, 평생을 세속적인 삶에 욕심이 없고 깨끗하게 살았다. 일찍이 세상 사람들이 과거를 하고 명성을 얻는 것을 중하게 여겨 본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타심과 유혹을 받는 데서 일어난다고 했다.

정이천의 과거 제도는 학과 위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본래 본받아야 하는 큰 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까닭에 子姪들이 혹시 과거 공부에 전념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못하도록 금하지는 않아도 좋아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칭찬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적당하고 실상에 맞게 했고 사람들의 잘못을 미워하는 것도 거스르지 않고 되 뇌이지 않았으며 근엄하되 온화함을 잃지 않았고 웃음을 웃어도 시류에 물들지 않았다. 따라서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것을 각기 다 본성으로 하니 기쁘게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마을에 일이 생기어 선비들의 공론에 틈이 생기면 의무와 도리를 받들어 풀어 주었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것을 끝내고 합치하여 함께 잘 살도록 했다.

32세(1608)에 臨川에다가 거처를 정했다. 정영방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평생 여기서 공부할 것을 결정한 시기인 것 같다. 무신년 이후 조정이 당파싸움으로 혼탁해지자 더욱 생각을 깊이 하여 거처를 고요한 곳으로 옮기시고 세상일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 자세히 보고 듣고 끝내 진보의 북쪽 임천(臨川)을 은거지로 정하니 꿈결에 신선이 가는 것처럼

깊이 결정하고자 하나 어머니가 늙으셨고 자녀가 어려 능히 오래도록 가 있을 것을 결정하지 못했다.

40세(1612)에 생모 상을 당한다. 선생은 성품이 효성스러워 삼가 부모를 섬김에 그 정성을 다했고 상을 당했을 때에도 그 슬픔을 다하다가 위장병을 얻어 몇 번이나 기절했지만 오히려 부축을 받으면서까지 장례를 치렀는데 그 절차 하나하나를 작은 것까지도 우복 선생의 자문을 받았으며 그 정에 겨운 글 또한 극진했다. 양자로 슬하를 떠난 모정이 남달랐던 것을 미루어 보면 그 정성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는 상황이다.

만형님 梅塢公과는 우애가 지극해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중년예강을 건너 芝圃, 益庄으로 이거한 후에도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형님께 보낸 연후에 맛을 보았다. 형님이 병색이 보이면 근심어린 빛이 나타났고 옷을 벗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한편, 이시기 북방에서는 누르하치가 만주족을 통일하고, 급성장하면서 1616년(44세)에 심양에 도읍하고 후금을 세웠다. 명나라는 위기를 맞고 있었다. 남방에서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고, 북방에서는 후금이 괴롭히고 있었다. 드디어 후금과 명나라의 운명을 건 대 전투를 결심하게 된다. 1619(47세)년 명나라는 후금과 전투를 위해 조선에게 병력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진족까지 연합하여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다. 이것이 유명한 深河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명나라는 크게 패하여 쇠퇴하게 되었고, 후금은 만주 지역을 차지하였다. 조선의 선비들은 명나라의 멸망을 문명의 종말로 생각하고, 청나라의 성장에 대해 우리 문명의 말살을 예측하였으며, 존명배청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조선은 후금을 자극하게 되었고, 광해군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갔다.

정영방은 광해군이 후금과 명나라를 두고 등거리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다. 정영방은 존명배청의 의리에 위배되는 상황을 맞아 벼슬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혼란한 조선의 정계 속에서 자신의 고집스런 성격이 수용되지 못하리라는 판단을 하고는 드디어 은

거를 결정하고 세상을 피해버렸다. 조선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드디어는 인조반정이 일어난다. 1623년(51세) 인조반정에 성공한 서인정권은 친명배금정책을 내세웠다.

인조반정 후 우복 정경세가 이조판서로 재직할 때 공에게 이르기를 “인조께서 숨어서 사는 선비를 찾아 벼슬길에 나오도록 장려하라고 하시기에 나는 그대를 천거하고자 하는데 그대는 어떠한가?” 하니 공은 칙연히 “저는 천성이 용졸하여 남과 잘 화합하지 못하니 한 번 출사하면 실수를 거듭해서 선생님께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하고 선생께 붉은 게(紫蟹) 한 마리를 편지와 함께 선물로 보내니 선생께서 “이 생물은 뒷걸음을 치니 도리어 나도 용퇴하라고 풍자하는 것 같네.”하고 선생께서 그 뜻을 가상히 여겨 다시는 출사하라는 말씀을 얹으셨다.

누르하치는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을 막기 위해 1627년(55세)에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후금에서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태종은 1627년 1월 3만 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공 했다. 후금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1월 25일 황주에 이르자 인조를 비롯한 신하들은 강화로, 소현세자는 전주로 피난했다.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후금군의 배후를 공격했으며 조선은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후금군은 계속 남하하다가 후방을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과, 명을 정벌할 군사를 조선에 오랫동안 묶어둘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강화의사를 표시했고 조선이 이를 받아들여 3월 3일 화의가 성립되었다. 이 和約은 비록 치욕적인 형제의 국을 규정하기는 했지만 명과의 외교관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정영방은 쇠퇴하는 명나라를 바라보며 문명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1636년(64세) 후금은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신하의 예’를 요구하자 조선은 단연코 이를 거부했다. 그 해 12월에 병자호란이 발생했다. 조선은 후금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1637년(65세) 1월 30일 인조가 드디어 남한산성을 나와 三田渡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하는 의식을 행했다. 청은 조선에게 조선은 청에 대해 신의 예를 행할 것. 명에서 받은 誥命冊印을 바치고 명과의 외교를 끊으며 조선이 사용하는 명의 연호를 버릴 것. 조선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볼모로 청에 보낼 것 등 치욕적인 조건을 요구하였다.

청이 요구한 명나라와의 단절은 온 나라 선비들을 자극하였고, 명나라 연호를 쓰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반발한 조선의 사류들은 중국 명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毅宗의 연호 ‘崇禎’을 외치며 이에 항거했다. 이리하여 조선에는 온통 ‘崇禎處士’를 자처하는 사류들이 별 때처럼 일어나 존명배청 사상이 급물살을 타고 팽배하게 되었다. 정영방도 송정처사를 표방하였다.

정영방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이에 집안일은 만아들 ‘焜’에게 맡기고 가솔들을 이끌고 임천으로 들어갔다.

十月既望陪舍兄觀擧于三樹亭(시월 기망에 삼수정에서 형님을 만나며)

江頭成小酌	강 머리에서 작은 술자리를 펼치니
雲罇轉水輪	구름 사이 밝은 달이 구름을 새어 나오네
玉兔呈全面	옥토끼가 전면에 드러남인가
姮娥露半身	항아가 반나(半裸)를 드러냄인가
似嫌將散夕	어둠이 흩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듯
如恨欲歸仁	마치 회한을 품고 인으로 돌아가는 듯
隨我林泉去	저를 따라 林泉으로 가시렵니까
毋令傷我神	제발 저의 심신을 아프게 하지 마소서

이 시는 간편한 술자리에 취하여 돌아오는 길에 달을 보고 지었다[仍成小酌歸程得月有作]라고 하였다. 이시 말미에는 “동생은 장차 임천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弟將有林泉之行故云]라고 주를 달고 있다.

이 시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임천으로 떠나면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석문은 형님과 함께 임천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싶었으나 형님의 판단을 위하여 망설이고 있었다. 형제간의 우의가 애절하게 드러나고 있다. 드디어 임천으로 은거하니 임천의 산은 강이 에워싸이며 풀과 나무와 꽃이 무성하였다. 맑은 못과 푸른색 절벽은 밝고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정영방은

이 속에 은거하여 승정처사를 표방하며, 날마다 朱子와 退溪선생의 책을 가지고 옷깃을 여미고 단정히 앉아 독서를 했다.

바람이 순하고 별이 따뜻하면 매양 지팡이를 짚고 어른과 아이들을 이끌고 산천경계를 거닐다가 바위와 소나무 아래를 배회하고 주변의 자연 경관을 거닐며 그 경치를 시로 읊고 해가 다하도록 돌아올 것을 잊으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지상의 신선에 비교했으며 그로 인해 호를 石門이라고 했다.

『論語·憲問』에 “자로가 석문이란 지역에서 묵게 되었다. 문지기가 “어디서 왔나요?”라고 묻자 “공자 문하에서 왔소.”라고 하니 아 “안 되는 줄 알면서 굳이 하려는 사람들이군요.”라고 문지기가 말했다.⁵⁾ 정영방은 이 문구를 의식하면서 호를 지었다. 석문이란 호는 이때 생겨난 것 같다. 정영방은 강호에 유유자적하며 성리학의 도를 실천했던 강호가도를 구가한 인물의 범주에 들어간다.

서쪽으로 작은 개울이 있으니 계곡 주변에 흰 돌이 촘촘히 박혀있어 자르고 깎은 것이 하늘이 만든 것 같았다. 그 아래에 못을 파니 이름은 瑞石池요, 위에 집 두 간을 지으니 그 이름은 ‘主一齋’며 현의 이름은 ‘雲樓軒’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서석지를 축조한 것은 1637년(65세)이었다. 사방 온 벽에 책들이 가득했으며 이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원림을 향유하였다. 선생은 영양 인근에 사는 李時明, 李季明, 趙佺, 趙任 申楫, 박사호 등과 교유하며 시를 짓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다.

이 때 친구들과 교유하며 지은 시들이 많다. 특히 申楫과의 교유가 많았는데 그가 지은 「寄申汝涉二絕」 중의 한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南浦波恬採綠蘋 남포의 물결 고요하여 마름을 따노라

5) 『論語·憲問』, 子路宿於石門 晨門曰 奚自 子路曰 自孔氏 曰 是知其不可而爲之者與

故人江海久相分 친구는 강해에 오래도록 떨어져 있네
 愁來欲奏相思曲 그리움이 쌓여 와서 상사곡을 연주하니
 落盡江花不見君 강의 꽃 다 떨어져도 그대는 오지 않네

선생은 문장이 우아하고 고우며 문필이 뛰어나고 힘이 있다. 더욱이 시에 능해서 우복선생이 일찍이 그 시에 대해 唐體詩를 체득했다고 극찬했으며 저서로는 『巖棲漫錄』과 『石門集』 등의 유고가 있다.

1650년(75세)에 조카 渭에게 이르시기를 “내 나이가 많고 병이 깊어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하니 너가 나와 함께 송천으로 가자.”하시니 송천은 곧 선대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다. 1650년 안동 송천으로 돌아와 揖翠亭을 지었다. 그가 지은 挹翠亭 5수 중 첫수는 다음과 같다.

晚將矮屋縛江濱	만년 강변에 작은 정자를 지으니
谷口煙嵐對子眞	곡구에 이는 안개 子眞을 대하는 듯.
造物無私供萬象	조물주는 사심 없이 만물을 만들었으니
名區有待秘千春	명승은 신비의 천추를 기대하네
縈迴水抱中和氣	휘휘 도는 강 구비는 중화의 기운을 안았고
平遠山如蘊籍人	먼 산은 고상한 사람 모습 같아라.
誰遣詩豪能說此	누가 詩豪로 하여금 능히 이를 노래하게 하라
時資吟玩爲灑神	때때로 詩 읊조리며 심신을 수양하노라

이 시는 안동 선어대에 지은 읍취정을 읊은 것이다. 이시에 나오는 ‘谷口’는 西漢 말엽에 高士인 鄭子眞이 지조를 굽히지 않고 谷口란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 이름이 京師에 진동하였다 한다. 정자진을 鄭谷口라고도 부른다. 《法言 問神》 여기서는 역시 상대방 정칙(鄭弼)을 가리킨다. 5구와 6구는 곧 陸放翁의 시어이다. 능히 이 물음에서 나온 것이니 형승은 온자한 것이 없었다. 고로 시중의 말을 차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朱子は 말하기를 放翁의 詩는 詩豪中の 豪者라 했다.[五句六句乃放翁語 能書出此間形勝無餘蘊 故詩中借言之 朱子云 放翁詩豪中之豪者也]

이해 6월에 병을 얻으셨는데 7월 7일 아들 焜에게 명하시어 목욕하고 손톱을 깎게 하시고 기쁘게 생을 마치셨다. 향년 74세 였다.

목재 흥여하는 <묘지명>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有覺愚翁振儒宗	선각자 愚伏선생 儒學으로 떨치더니
公能大扣韻洪鍾	공께서도 사문의 종을 크게 울리셨네
耽經畏義功莫輟	경전과 의리를 그만두지 않으니
仕吾未信致師說	출사하지 않으시고 스승의 말 실천했네
棲遲一壑碩人寬	골짜기에 숨으니 훌륭한 군자시라
我琴我書至樂存	거문고 타고 독서하니 즐거움이 지극하네
渾然返璞不辱己	혼쾌하게 본심을 돌이키니 욕됨이 없어라
有孫鑽石埋我誄	손자는 비석 다듬어 나의 글을 묻는 구나

청대 권상일은 “공은 일찍이 아름다운 비결을 이어받아 爲己之學에 종사하면서 그 안과 밖의 경중을 분명히 하여 처음부터 매우 확실히 밝히고 실천했다.”⁶⁾고 하였다.

Ⅲ. 석문 정영방의 문학범주

이 시기 조선의 선비 사회는 우리 국토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게 대두되어 민족과 국토의 중요성을 인식한 인문지리서들의 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며, 관료사회에서는 국방이나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각 지역 읍지의 편찬과 같은 관찬지리지 저술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석문 정영방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성리학의 올바른 가치 정립과 학문계승에 대해 심각

6) 『石門先生文集』, 5권, 附錄, <墓誌銘 竝書(木齋 洪汝河)>, <墓碣銘 竝書(清臺 權相一)>, <家狀(鄭焜)>, 참조.

한 고민을 하였다.

“선조께서는 덕을 숨기시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으셨고, 남기신 草稿 두 권이 있습니다. 영조시대에 『輿地圖書』를 편찬할 때, 그 원고를 자료로 사용하고서, 드디어는 규장각에 보관되기에 이르렀는데, 夢巖 南克寬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서, 드디어 合浦의 珍珠처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⁷⁾

이 서문을 쓴 사람은 鄭彦忠(1706, 숙종 32~1772, 영조 48)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도승지를 지냈으며 청백리로 일컬어진 정영방의 일가이다. 『여지도서』는 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마는 전국 읍지부誌이다. 1530년에 <동국여지승람>이 신증된 이후 250여 년이 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지리지를 편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정영방의 자료에서는 形勝·山川·樓亭·名宦·人物 등을 참고하였으리라고 추측된다. 정영방의 문장은 영조 대에 이미 사료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가치가 있었다.

석문선생의 문집 규모는 평생 저작들을 다 모으지는 못하였지만 아들 鄭焜이 이미 「巖樓漫錄」 1권과 「石門稿」 2권을 수습하여 家藏하고 있었다. 그 후 조정에서 『輿地勝覽』을 補修하려고 遺書를 구해 두었는데, 南克寬이 저자의 詩稿 2책을 발견하여 후손 가에 돌려주었다. 그의 문집을 살펴보면 권1~3은 辭(2題), 賦(2), 詩(287), 輓詞(30)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4는 산문으로 疏(2), 書(7), 記(2), 祭文(9) 誌碣(2), 行錄(1), 遺事(1), 雜著(1)이다. 상소는 <龍宮士民請蠲減昏朝所加下中之稅疏> 관리의 횡포로 수탈착취 당하는 龍宮의 士民들을 위하여 광해군 때 정해진 下中의 전답 부세를 下下로 경감시켜 줄 것을 청하는 것이다.

그의 <辭>에는 <日晩歌; 날 저무는 노래>가 있는 데 이것은 德茂 柳仁茂에게 붙인 것으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7) 『石門先生文集』, 卷一, ; <石門先生文集序(鄭彦忠)>; 日公之後孫好相 袖公遺稿示不佞曰 先祖隱德不仕 有遺草二冊 在先王朝修地誌徵逸書 遂爲秘府之藏 南夢巖克寬推還之而遂返合浦之珠矣

駕余車兮登山	내가 수레를 타미여 수양산에 오르도다.
渺悵恨兮不還采	아득히 슬퍼하네 나물 캐러가서 돌아오지 않음을
幽蘭兮空谷	텃빈 골짜기 그윽한 난초여
望美人兮雲間	구름사이로 미인을 바라봄이여
日欲落兮咸池	해는 함지에 떨어지려 하니
碧桂凋兮芳華歇	푸른 계수나무가 시들고 아름다운 꽃이 마르네
時難得以再好	시절은 다시 좋아지기 어렵도다
羌不可乎遠別	밤도다 멀리 떠날 수 없음이여 ⁸⁾

이 작품은 특이한 형식과 내용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것은 초사의 형식을 빌어서 쓴 한 편의 賦이다. 해가 지는 풍경을 읊어 시대가 태평성대가 아님을 풍자하고 백이와 숙제가 고사리를 캐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백이숙제의 고사를 변용하고 있다. 텃빈 골짜기 그윽한 난초는 은거한 선비이며 구름은 간신들을 비유하고, 미인은 임금을 비유한 것이다, 한편의 초사를 읽는 듯한 감동이 온다. 정영방은 자기시대의 암울한 시대를 표현하면서 은거의 정신을 본받는 대상을 굴원으로 정하고 굴원과 동일시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送襄陽許使君令公辭〉는 저자 王母의 內弟가 襄陽 郡守를 사직하고 돌아갈 때 흠모의 마음과 이별의 아쉬움을 담아 지은 것이다. 賦의 〈鄭瓜亭賦〉는 고려 睿宗 때 鄭紱가 〈鄭瓜亭曲〉을 짓게 된 경위 및 정과정을 제목으로 賦를 짓는다는 내용이다. 정영방은 조정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정과정곡에 가탁한다. 정영방은 도은 이송인의 <秋日雨中有感>을 읽었다.

琵琶一曲鄭過庭	비파 한 곡조 〈정과정〉 노래
遺響淒然不忍聽	그 음향 슬퍼서 차마 듣지 못하겠네
俯仰古今多少恨	고금을 아울러 한이 얼마나 클까
滿簾疏雨讀騷經 ⁹⁾	주렴 가득 성긴 빗속에서 〈이소〉를 읽노라

8) 『石門先生文集』, 卷一, 辭, <日挽歌>, 참조.

“타향의 나그네살이 중에 머리는 온통 백발, 도처에 만나는 사람마다 눈길이 곱지 않네. 맑은 밤 깊어가며 창에 달빛 가득한데, 비파 한 곡조 <정과정> 노랫소리여. [他鄉作客頭渾白 到處逢人眼不靑 淸夜沈沈滿窓月 琵琶一曲鄭過庭]” 이것은 思菴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은 시이다. 여기에 삼가 이렇게 기록한다.

이 작품은 고려 의종 때 鄭絃가 지은 가곡이다. 정서는 동래정씨로 정영방의 먼 일가이다. 아무 죄도 없이 참소를 받고 동래에 귀양 가서 임금을 그리는 슬픈 심정을 노래한 것인데, 《樂學軌範》에 실려 전한다. 思菴은 柳淑(1324~1368)의 호이다. 1368년(공민왕17) 9월에 辛旽의 참소를 받고 靈光에서 목이 졸려 죽었다. 그는 도은의 座主다. 이것을 자기가 은거한 임천에 붙여 부를 지은 것이 <정과정부>인데 이것은 우리 국문학 상 중요한 자료이며, 이 작품은 정영방의 문제작이다. 작품은 너무 길어서 일부만 소개한다.

朝發軔於臨川	아침에 임천을 출발하여
夕弭節乎蓬原	저녁에 동래에 도착을 하니
江波咽而有聲	강물이 오열하는 듯한 소리
煙樹暝而無痕	자욱한 안개에 숲은 어두워 분간을 못하니
夫何樂浪之一隅	여기가 어찌 樂浪의 한 모퉁이 인가
絕有似乎湘沅	절경은 湘江과 흡사하구나
豈三閭之遺騷	어찌 삼려대부의 離騷經처럼
何壹鬱而煩冤	어찌 한 결같이 번민만 가득한가

정영방의 이 작품은 이소와 정과정곡을 결합시킨 부의 걸작이다. 정영방은 “내가 臨川에 우거하면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鄭瓜亭을 제목으로 賦를 지으라고 일렀더니 감탄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었다. 瓜亭公은 바로 侍中이신 鄭沆의 아드님이며 鄭沆은 나의 선조이신 僕射給

9) 李崇仁, 『陶隱集』, 第3卷, 詩, 「秋日雨中有感」. 참조.

事中 鄭澤(四世)의 동생이다. 그와의 만남은 남과 같지 않기로 붓을 잡아 이 賦를 마치노라.”라고 하였다. 이 작품은 우리 국문학의 시가 역사에 남을만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哀周房山鶴賦〉는 청송 주왕산을 노래한 것이다. 小方丈山이라 불리는 주방산에 仙鶴이 날라 왔는데 무지한 백성이 쓴 화살로 인해 멀리 가버렸음을 서글피 여겨 지은 것이다.

天霜寒於舊棲	하늘에선 된서리가 옛 등지에 내리고
海雲迷於歸路	바다에 생긴 구름 돌아오는 길 방해 하네
邈青鳧之僊境	靑松의 仙境은 아득하지만
實東國之天台	진실로 조선의 천태산이로다
赤霞接於蒼島	붉은 노을 푸른 섬에 이어져 있고
彩煙連於蓬萊	무지개는 봉래산에 연결 되었네
聊於焉而托迹	에오라지 학소대 자취에 의지하여
戢軒天之雲翰	하늘의 상제에게 편지를 전하네

정영방의 사부문학은 특히 아름다워 연구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詩는 형식 별로 배열되어 있는데, 五言絶句(30), 五言律詩(54), 五言排律(5), 五言古詩(23), 六言(2), 七言絶句(101), 七言律詩(58), 七言排律(1), 七言古詩(10), 雜詩(3)가 실려 있다.

정영방이 거처하던 益庄, 敬亭, 臨川, 由由軒, 芝圃 등의 풍경을 읊은 것과 韓克昌, 柳友潛, 金得礪, 申楫, 鄭允穆, 金玲, 鄭之諶, 柳德茂 등에게 보내는 시와 李燦, 權詹, 朴淳, 李燦, 琴大雅, 李炯, 柳衫, 李元圭, 金兌, 權山立, 朴應衡 등에게 차운한 시 등이 대부분이다.

석문 정영방의 시문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남아 있는 문적이 문집에 실린 것이 전부이다. 정영방의 작품이 제때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실 된 것이 많았고 그의 시문의 특성으로 보아 주옥같은 작품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의 문학 범주가 모두 드러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IV. 석문 정영방의 원림과 시세계

정영방의 원림은 은거의 원림이요. 성리학의 공부를 위한 학자의 원림이다. 정영방의 원림의 철학적 기저는 유학이다.

『論語·憲問』에 “현명한 사람은 그 세상을 피하고, 그다음 사람은 그 지역을 피하고, 그다음 사람은 그 기색을 피하고, 그다음 사람은 그 말을 피한다[賢者辟世 其次辟地 其次辟色 其次辟言]”라고 했다.

조선 선비들은 은거를 하면서 자주 그 사상의 기저를 -『論語』, 「季氏」 편에서 찾고 있다.

隱居以求其志	은거하여 그 뜻을 구하고
行義以達其道	의를 행하여 그 도에 통달한다

-『論語』, 「季氏」-

정영방 역시 이 隱求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원림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운 자연에 인공을 가하여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삼은 것이다. 그 안에 정자를 짓기도 하고 나무나 꽃을 심어 정원을 꾸미기도 한다. 옛사람들은 정자를 세우고 원림을 가꿀 때에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꾸몄다.

원림은 먼 옛날 원시시대부터 있었으며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진시황의 아방궁, 상림원으로부터 출발했다. 우리나라엔 신라의 안압지 같은 원림의 형태가 있었다. 원림이란 무엇인가?

원림은 반드시 건축물을 향하여 있게 되고 건축물의 형태는 반드시 추구하고자 하는 도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형태로 지어진다. 정영방은 성리학자이다. 나무하나, 꽃 한 송이, 풀 한포기, 모든 물상이 성리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상징하는 정원에 있는 나무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유가의 나무이어야 한다. 은행나무이거나 회화나무 이거나 송백이거나 매난국죽이거나 그 원림에는 성리미학인 성리의 이취가 오묘하게 담겨있다.

원림은 보통 유교적인 풍수지리에 근거하여 건축물을 짓고, 실내 인테리어를 장식하고, 산과 강 등의 경관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며 그가 추구하는 성리학의 범주 안에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음악을 창작하기도 한다. 그 세밀한 기물들도 문고리는 왜 둥글고, 문은 왜 네모지고, 기둥은 왜 네모기둥이고 둥근 기둥인지 왜 사각형과 원을 대비시키며 건축하는지 그리고 그 기물에 새겨지는 글씨들은 어떤 것인지, 그 器銘들이 의미는 어떤 것인지 꼼꼼히 생각하고, 그가 추구하는 성리학의 도에 알맞도록 일상생활의 편의를 고려하며 다듬어진 것들이다.

거기에는 성리학이 추구하는 천원지방의 우주관과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윤리, 예악에 맞게 설계된 마루나 방, 학문을 추구하고 향유하기에 알맞은 정자 등 원림은 성리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중요한 성리미학 요소들이다.

정자의 기둥엔 주인의 우주관과 대자연의 심미관을 드러내는 대련이나 시구가 쓰여 지게 된다. 그래서 원림은 같은 나무라도 나타내는 상징의 미의식이 나르게 나타난다. 술집의 정원에 있는 소나무와 선비의 정원에 있는 소나무는 같은 나무이지만 이미지는 다르고, 사찰의 원림과 서원의 원림은 그 이미지가 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원림을 경영하는 정자의 편액에는 반드시 그가 추구하는 도를 표방하게 되고 원림을 바라보며 심성을 수양하고 마음을 바로잡는 경구가 함축된 정자의 이름이 있게 된다.

이는 다분히 철학적이고 문학적이며 심미적인 감수성이 총 동원되는 예술의 행위이다. 사람들은 건축물과 원림만 보아도 감동하게 되고 이것이 유가의 것인지 불가의 것인지 도가의 것인지를 알아낸다. 이러한 원림은 문학과 예술을 수반하게 된다.

정영방의 臨川 ‘서석자’ 원림의 중심은 紫陽山에서 비롯된다. 그는 자양산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盛德由心學
山名只口傳

성대한 덕은 심학을 말미암아야지
자양산 이름은 입으로만 전할 뿐

遺珠空守櫝	보물은 비었는데 빈 껍만 지키니
其亦異前賢	그 또한 전대의 현인과는 다르다오.

紫陽山은 정영방이 경영하는 원림의 이데아이다. 이 산을 중심으로 원림이 경관이 형성된다. 정영방은 이 산의 이름을 주자가 살았던 지명인 紫陽을 의식하여 紫陽山이라고 이름 지었다. 정영방은 자양산 아래 원림을 경영하며 온통 주자학으로 산천을 수놓고 있다. 그의 일상은 성리학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의 원림을 향한 공간감각은 산천의 형상에 있고 그가 향한 공간 인식은 철저하게 성리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자양산이라고 이름하고 다음과 같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

그는 주변의 주산을 紫陽山으로 이름하고 다음과 같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

主山의 흙이 자주색이고 북쪽에 물이 있는 고로 紫陽山이라 이름 하였다. 옛날 朱子께서 거쳐하던 곳이 紫陽이었다. 그 훌륭한 학문은 공부하지 않는 자가 산천의 아름다운 이름에만 구구하게 집착하니 매양 그 이름 일컬을 때마다 스스로 비웃을 뿐이로다.¹⁰⁾

정영방은 철저하게 원림을 성리학을 공부하는 보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림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도 성리학의 색채로 물들이고 있다.

16세기 초 조선의 성리학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맴돌고 있을 때, 1543년 주자대전외 간행은 조선의 학풍을 변화시켰다. 이 상승의 분위기를 타고 퇴계와 율곡을 거치면서 조선 성리학은 최고의 절정에 이른다. 문풍은 이미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문학의 향유방식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며 신선한 구상과 기발한 상상력이 넘쳐나고 있었다.

10) 主山土色紫 又在水北故名 昔朱先生所居地爲紫陽 不學其所當學者 而獨區區於山川之美號 每一稱之時 自哂耳

조선의 16세기 성리학의 최고 절정기에 자연미의 새로운 발견에 이르는 그 원동력의 중심에는 『朱子大全』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주희의 문집은 언제 전해졌을까? 16세기 중반 까지 주희의 학문은 부분적으로 소개되었다. 조선학자들의 끊임없는 성리학의 연구는 주자에게 집중되었고 이 관심은 마침내 조선에서 『朱子大全』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조선 중기까지 성리학이 정치철학의 근간을 이루다가 1543년(중종38년) 『朱子大全』이 국내에서 간행되면서 비로소 주자의 모든 詩文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朱子大全』은 주희의 시문집과 편지가 대부분이었다. 이 책은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조선 유학은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면서 중국에서 홀대받던 주자학은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꽃피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서원열풍, 이기철학, 구곡시가의 유행, 26영 등, 자연미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선비들을 산림으로 돌아가게 하고 강호가도를 외치게 했다. 이것들은 모두 『주자대전』 간행 이후 주자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며 논의된 것들이다.¹¹⁾ 퇴계의 <도산구곡가>, 율곡의 <고산구곡가>, 약봉 김극일의 <입하구곡가> 박하담의 <운문구곡가> 등이 줄을 이어 나타났다.

석문 정영방도 주자대전 읽기에 몰두했으며, 성리학을 바탕으로 자연미의 새로운 발견에 심취하여 원림을 경영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자연미의 새로운 발견은 강호가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원림은 건축물의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이다. 산과 물, 건물의 포치, 길과 건축물의 실내 장식 등, 그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건물을 조직하였다. 건축물에는 세련되고 심원한 정취와 意境이 고려되어 있다.

의경은 시적 정취의 의도이다. 이것이 정원을 통과한다. 여기에는 직관

11) 신두환, 「16世紀 朝鮮의 『朱子大全』 刊行과 그 學問的 動向 研究」, 『南冥學研究』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院 南冥學研究所 2016.

과 감수성이 작용하고, 詩畫의 심미적 의향이 들어가 있다. 이 ‘서석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특수한 성령의 융합과 지향하는 정신세계가 감발음통하고 있는 것이다.

정영방은 이 아름다운 원림 속에서 군자의 성정을 도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정원 안의 주련은 성리학의 요체로 건축물의 구성 요소를 성리학적 공간으로 변환시킨다. 그 공간은 시로써 심성을 수양하는 문학과 성리학을 상징하는 건축의 자연적 연결을 얻는 성리미학의 추구였다. 정영방의 원림은 문학예술과 건축예술이 결합하여 성리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산되는 원천이 된다. 시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다. 얼굴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원림도 사람의 얼굴처럼 바로 그 사람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기둥에 쓰인 대련은 성리미학을 표방하고 예술적인 정원과 물고기를 감상하는 정자는 더욱 시의 정경과 건축 속의 의경을 창출하고 있으며 성리학은 그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

그 원림의 중심에 『荷池』가 있다. 정영방은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小於一方盂	네모난 소반 같은 작은 연못 하나
涵盡秋天碧	가을 하늘 푸르름 모두 담고 있네
中有十丈花	그 가운데 연꽃은 피어있으나
芳香人不識	아름다운 향기 사람들은 알지 못하네

- 『荷池』, 『石門先生文集 卷1』

석문은 왜 연꽃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성리학을 이어온 주렴계의 철학이 바탕이 되고 있다. 一方에는 성리학적 우주관이 내포되어 있다. 秋天은 성리학의 학문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석문 정영방의 원림 속에는 성리학의 철학적 기초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연미를 새롭게 발견해가며 성리의 미의식을 추구하고 있었다. 원림과 문학세계의 상관성은 성리학적 우주관이나 자연관 인식 사상 등이 깊게 깔려 있다. 성리학의 異趣를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周敦頤의 <愛蓮說>의 주제의식은 “진흙 속에서 나왔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물결에 씻어도 오염하지 않다.[出於泥而不染 濯清漣而不芴]”는 군자의 삶이다. 석문이 추구하는 삶도 바로 이 연꽃이 상징하는 군자의 이미지이다.

가운데는 텅 비고 밝은 곧아서 넉쿨지지 않고 가지를 뺏지도 않는다. [中通外直 不蔓不枝], 향기는 멀리 퍼져나가면서도 더욱 맑다 꽃꽂이 서서 멀리서 바라 볼 수는 있어도 함부로 가지고 놀 수는 없는 [香遠益清 亭亭淨植 可遠觀而不可褻玩焉] 연꽃은 군자의 꽃이었다. 연꽃을 사랑하는 나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蓮花之君子者也 蓮之愛 同予者 何人] 연꽃은 피어 있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연꽃에 비유된 군자의 이미지를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다.

퇴계는 도산서당 마당 한편에 연못을 만들고 ‘정우당’이라고 했다. 퇴계는 그곳에 연꽃을 심었다. 퇴계 역시 주렴계이 애련설을 바탕으로 연꽃을 사랑하였다.

정영방의 이 연지는 바로 서석지이며 주렴계의 애련설을 관통하고 있다. 서석지에 피어난 연꽃 한 송이가 주렴계의 애련설을 주창하고 서있는 것이다.

이 시는 서석지를 묘사하며 그 속에 성리학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를 함의시킨 철리시이다. 정영방은 성리학을 표방하면서 그 도를 추구하기 위해 서석지를 만들었다. 기구의 ‘一方’은 네모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지만 이것은 天圓地方의 성리학적 소우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方正한 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네모는 성리학적 대자연관을 내포하고 있다. 승구의 ‘秋天’은 맑고 드높은 가을 하늘처럼 명쾌한 성리학의 理趣를 함의하고 있다. 이것은 성리학의 심오하고 원대한 목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전구의 못 가운데 피어난 연꽃은 맹자이후 1400여 년간 끊어졌던 유학을 다시 잇는 신유학의 개창자 주렴계의 애련설에 나오는 그 연꽃이며. 결구의 그 은은한 향기는 성리학의 오묘한 이치를 드러내는 사색의 창으로 성리학의 이상세계가 널리 전파되어 퍼지는 것을 형상한 것이다. 이시는 석

문 정영방의 입도시로 그의 원림과 문학세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많은 시이다.

이 蓮塘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리학의 심오한 이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리미학이다. 서석지는 문학과 예술을 함의 시킨 위대한 유가의 정원이자 원림의 보고이다.

이 서석지는 梁山甫(1503~1557)가 경영한 담양의 소쇄원, 尹善道가 甫吉島에 경영한 세연정의 부용원과 함께 우리나라 사대부들의 삼대 정원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원림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원림은 정자를 향하고 정자는 그 원림을 끌어들이며 편액과 기둥의 대련은 그가 추구하는 도를 표방하게 된다.

불교 사찰의 원림과 성리학을 추구하는 선비의 원림은 다르다. 원림은 철학을 강하게 대변한다. 숲집의 정원과 서원의 정원은 그 원림만보아도 다르다. 단아함 속에서 조용한 성리의 이취를 상상해야할 분위기에 어울리는 원림을 추구해야 한다. 석문 정영방도 주렴계의 애련설을 담으려고 하고 있다.

幽磻(유간, 그윽한 골짜기)

幽磻邃而寬	깊고도 넓은 그윽한 골짜기에
端居理情性	바르게 앉아서 性情을 다스리니
日昃半庭陰	해는 기울어 뜰의 반은 그늘이 들고
幽禽相對咏	골짜기 새들과 마주하여 시를 읊노라

주희는 幽澗을 자주 읊었다. 그리고 <尋白鹿洞故址 愛其幽邃 議復興建 感歎有作>¹²⁾이란 시도 보인다. 백록동 옛터를 찾아가 그 깊은 골짜기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정영방은 주자대전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주자대전은 1543년에 간행되어 처음 선비들에게 배포되었다. 퇴계도 1543년

12) 『주자대전』, 시, <尋白鹿洞故址 愛其幽邃 議復興建 感歎有作>, 참조.

부터 주자대전을 읽기 시작했다. 주자대전에는 주자의 시가 들어 있었다. 정영방은 주자의 시에 심취하고 있었다. 깊은 산골에 흐르는 도량은 학문을 상징한다. 주역 蒙괘의 과상처럼, 주역의 몽괘는 학문을 교육하는 것을 상징한다. 웅달샘 물이 먼 바다에 이르듯이 깊은 골짜기에 은거하여 공부하는 것이 물처럼 흘러 먼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퇴계도 도산서원에 蒙泉을 만들었다. 童蒙先習 擊蒙要訣의 ‘蒙’자는 모두 몽괘와 관련되어 있다. 정영방은 이 幽澗이나 서석지의 물에다가 이 몽괘의 형상을 함의 시켰다. 정영방의 시에는 성리학의 오묘한 이치가 함의되어 있으므로 이해에 주의를 요한다.

정영방은 성리학의 敬을 바탕으로 그가 지은 敬亭에 대하여 주변 경관을 형상화하여 32편의 절구를 읊었다. 그의 <敬亭雜詠 三十二絶>에는 서석지의 원림에 대한 형상이 집약되어 있다. 그가 읊은 <敬亭雜詠 三十二絶>은 성리학을 기초로 예술을 추구한 척도를 얻었고 걸출한 기백이 생동하는 호탕한 표현이 들어있다.

敬亭

有事無望助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바라지 말고
臨深益戰兢	깊은 못에 임한 듯 더욱 조심하라
惺惺須照管	늘 깨어있는 자세로 세상을 관조하며
毋若瑞巖僧	서암승 같이 하지 않고 애쓰리라

이 시의 詩眼인 ‘惺惺’은 마음이 항상 맑게 깨어 있음을 말한다. 정영방은 우복 선생에게 『심경』을 읽었다. 남명 조식은 늘 惺惺子라는 방울을 차고 敬義刀라는 칼을 차고 경을 실천하며 심성을 수양하였다. 정영방도 경을 실천하고자 원림을 향해 자기의 학문을 표방하고 있다.

심경부주에 성성은 마음이 항상 맑게 깨어 있음을 말하고, 瑞巖의 중이란 곧 唐代의 어떤 고승을 가리키는 말로, 그 고승이 台州의 瑞巖院에 있

었던 데서 말미암은 호칭이다. 《心經附註》 〈敬以直內章〉에, 謝良佐가 말하기를 “공경은 바로 항상 성성하는 법이다.[敬是常惺惺法.]”라고 한 데 대해, 朱子가 이르기를 “서암의 중은 매일 항상 스스로 ‘주인옹은 성성한가?’라고 묻고는 ‘성성하다.’라고 스스로 대답하곤 했다. [瑞巖僧, 每日間, 常自問主人翁惺惺否, 自答曰惺惺.]”라고 하였다. 《心經附註 敬以直內章》. 서암승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여기서는 곧 저자 자신이 성성하는 법칙을 굳이 서암에게 묻지 않고도 배울 데가 따로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성리학의 경공부는 자연 환경과 동화 한다.

<主一齋>

주일재는 읍청구의 위에 공터에 있다. 趙甥으로 하여금 두 간 집을 짓게 하였다. 손장수의 땅에 지었다.[挹清渠上有隙地 令趙甥構屋二間 爲諸孫藏修之地]

爲學須要敬	학문을 하는 요체는 경에 있으니
行身莫近名	행동거지는 이름에 가깝지 못하다
吾衰無自得	내가 노쇠하여 자득함이 없으니
聞汝讀書聲	너의 독서소리 듣고 싶어라

敬은 主一無適이다. 정영방의 원림은 하나의 사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영방은 퇴계, 남명,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그의 스승 우복 정경세도 敬을 표방한 것을 계승했다. 敬은 유가의 중심된 사상이다. 정영방은 그 원림의 중심 건물의 편액을 敬亭이라고 하였다.

퇴계의 학문을 한 글자로 요약하라고 하면 ‘敬’이라고 할 수 있다. 정영방은 서석지의 주제의식을 敬을 실천하는 것으로 잡았다. 주희는 경을 “마음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몸을 살필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이 마음을 살피 敬으로 바르게 한 뒤에야 이 마음이 항상 보존되어서 몸이 닳여지지 않음이 없다”

“敬은 움직임과 고요함을 관통한다. 그러나 아직 발동되지 않았을 때 한곳에 뒤섞여 있는 것이 본체이다. 그것이 아직 발동되지 않았음을 알면 경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발동하면 일에 따라서 반성하고 살펴보게 되는데 경의 작용은 거기에서 행해진다. 그러나 본체가 평소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작용이 저절로 베풀어지지 않는다.”(『주자문집』)

“敬은 움직임과 고요함을 겸한 것이다. 잃음이 없으면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는데 이 뿐이라면 이것이 중(中)인 것이다.”(『주자어류』). 程頤는 敬은 主一無適이라고 하였다. 정영방은 자기의 정자를 <主一齋>로 편역하고 경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棲霞軒

暮挹崦嵫翠	저녁에는 엄자산의 푸르름에 읊하고
朝吞暘谷紅	아침에는 양곡의 붉은 해를 삼킨다
巖齋如羽化	암재는 신선과 같으니
吾亦御冷風	나 또한 시원한 바람을 거느린다

崦嵫山은 해가 들어가는 산이고, 暘谷은 해가 뜨는 곳이다. 암재는 棲霞軒을 가리킨다. 저녁노을이 깃드는 곳이다. 이것은 곧 敬亭의 마루인 雲棲軒과 통한다. 이곳은 속세의 시끄러움을 벗어나 신선의 경지로 탈바꿈하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다.

克己齋

衆欲攻吾罅	무리들이 나의 잘못을 공격하려 하면
其彊幾百秦	그 강함이 몇 백 개 ¹³⁾ 의 진이더라도
紅爐一點雪	불계 단 화로에 한 송이 눈 녹이듯
三月不違仁	안회는 삼개월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도다.

13) 『사기』, 「張儀列傳」: 雖有百秦 將無奈齊何

이 극기제는 克己復禮 정신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온갖 무리들이 자기를 비방해 오더라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는 기개를 보여준다. 그것이 비록 저 강한 진나라 군대 백 개가 몰려오더라도 뜨거운 화로에 한 점 눈처럼 녹여 없애는 자신감과 긍지를 나나내 보인다. 성리학의 정신으로 철저히 수련되어 어떤 것이라도 모두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자신감이다.

마지막 구의 ‘三月不違仁’은 『論語·雍也』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다. 子曰回也是其心三月不違仁이오 其餘則日月至焉而已矣니라.[공자께서 말씀하셨다. “顔回는 그 마음이 3개월 동안 仁을 떠나지 않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仁에 이를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주석들은 예리하였다.¹⁴⁾ 그만큼 은둔해서 수기치인하는 사람에게는 이 논어의 구절이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정영방은 聖人을 추구하고 있으며, 顔回의 ‘安貧樂道’를 추구하고 있다. ‘安貧樂道’와 江湖歌道는 뜻이 통한다. 다만 강호가도는 은거의 정취가 있는 것이 다를 뿐. 정영방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석문 정영방의 원림과 문학은 유교경전의 글귀

14) 三月은 言其久라 仁者는 心之德이니 心不違仁者는 無私欲而有其德也라 日月至焉者는 或日一至焉하고 或月一至焉하여 能造其域而不能久也라.[3개월은 그 오래됨을 말한다. 仁은 마음의 德이니, 마음이 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욕이 없어 그 덕을 간직한 것이다. 日月至焉은 하루에 한 번 仁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한 달에 한 번 仁에 이르는 것이니, 그 경지에 도달하되 오래 할 수 없는 것이다.] 程子曰 三月은 天道小變之節이니 言其久也니 過此則聖人矣리라 不違仁은 只是無纖毫私欲이니 少有私欲이면 便是不仁이니라 尹氏曰 此는 顔子於聖人에 未達一間者也니 若聖人則渾然無間斷矣리라 張子曰 始學之要는 當知三月不違와 與日月至焉의 內外賓主之辨하여 使心意勉勉循循而不能已니 過此면 幾非在我者니라.[程子가 말씀하였다. “3개월은 天道가 조금 변하는 절기이니, 그 오래됨을 말한다. 이 경지를 지나면 聖人이다. 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틈끝만한 私慾도 없음이니, 조금이라도 사욕이 있다면 곧 이는 仁이 아니다. 尹氏가 말하였다. “이는 顔子가 聖人에 비하여 한 칸을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성인이라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間斷이 없을 것이다.” 張子가 말씀하였다. “처음 배우는 자의 요점은 마땅히 3개월 동안 仁을 떠나지 않음과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仁에 이름의 안팎과 賓主의 구별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힘쓰고 힘쓰며 순서에 따라 그치지 말게 해야 할 것이니, 이 경지를 지나면 거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경전은 곧 문학의 심연이었다.

정영방은 四友壇을 만들었다. 정영방의 원림은 한 번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추가되고 있었다. 그가 추구하는 원림 속에는 주희와 퇴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영방의 원림 속에는 퇴계의 도산서원의 理趣가 들어 있다. 퇴계는 정우당이란 뜻을 파고 그 위에 절우사를 만들어 소나무와 대나무, 매화, 세한삼우에 국화를 심고 四友의 개념을 바탕으로 화단을 만들었다. 연꽃과 퇴계 자신을 넣어 六友라고 했다. 정영방은 <四友壇>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네 벗이란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이다. 소나무와 국화는 전부터 있던 것을 그대로 두었고 대나무는 용궁에서 옮겨왔다. 매화는 무거워서 먼 길에 가져오지 못했다. 지금은 자형화의 담백함과 연꽃의 맑은 향기며 석죽의 강직함을 바탕으로 그윽한 貞節의 정취를 취하여도 매화의 빠진 것을 가히 보충할 수 있겠는가?

자로가 성인에 대해서 물으니,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藏武仲의 智慧와 公綽의 욕심 없음과 변장자¹⁵⁾의 용맹함과 冉求의 예능으로 禮樂의 문장을 쓰면 또한 가히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의 성인은 어찌 반드시 그러하겠느냐? 이득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고, 위태함을 보면 생명을 바칠 줄 알며, 오래 전의 약속에 대하여 평생 자기 말을 잊지 않고 실행하면, 또한 성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하셨다.)¹⁶⁾

하물며 蓮은 君子를 상징하고, 紫荊花는 형제간의 우애를 알게 하고,

15) 卞莊子 ;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의 대부[大夫]. 그가 호랑이를 잡으려 하자 서동이 말리면서 호랑이 두 마리가 소를 잡아먹을 때 서로 많이 먹으려고 다투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큰놈은 상처를 입게 되고 작은 놈은 죽게 될 것이니, 그때 상처 입은 놈을 잡으면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조언함. 변장자는 서동의 말을 옳다고 여기고 잠시 기다렸는데, 정말로 두 호랑이 가운데 한 놈이 죽고 다른 한 놈은 상처를 입었기에 두 마리 모두 잡았음.

16) 『論語·憲問』 ; 子路 問成人 子曰 若藏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交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曰今之成人者 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焉 亦可以爲成人

石竹은 湯液에 들이니 德行과 才能을 고루 갖추었다고 해도 옳을 것이다. 덕행과 재능을 고루 겸비한 것이 한 마당에 함께 있으니 어찌 나에게 이익이 되는 벗이 아니라! 만약에 梅花의 品格을 대신하기에 족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것을 보존하여 박아군자의 변별할 수 있는 자를 기다려보고자 한다.

梅菊雪中意	매화 국화는 눈 속에 피어나고
松篁霜後色	소나무 대나무는 서리 뒤에 더 푸르네
遂與歲寒翁	드디어 송백과 함께하니
同成帶礪約	帶礪의 맹서처럼 약속한다오. ¹⁷⁾

정영방은 <사우단>에 많은 교훈적 의미를 집어넣었다. 조선 선비사회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선비들의 절개와 지조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깊게 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난리들은 성리학을 뒤집어 놓았다. 이 시에서는 절개를 드러내어 추운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기백을 알 수 있듯이 사람도 그 어려운 때를 만나야 그 지조와 절개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날의 성인은 어찌 반드시 그러하겠느냐? 이득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고, 위태함을 보면 생명을 바칠 줄 알며, 오래 전의 약속에 대하여 평생 자기 말을 잊지 않고 실행하면, 또한 성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정영방은 이 구절은 빼고 두었다가 시에서 그 뜻을 형상화한 것이다. 帶礪之誓는 黃河가 허리띠같이 좁아지고 泰山이 솟돌처럼 작아질 때 까지 굳게 맹서하는 의리를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퇴계의 도산서원의 정원인 <육우단>과 같은 분위기

17) 四友壇: 四友者 梅竹松菊也 松菊仍舊有 竹移自竺山 梅重不可致遠 今以紫荊之苦淡 蓮之清馥 石竹之耿介 資之以幽貞之趣 亦可以補梅之缺耶 孔子曰臧武仲之智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況蓮稱君子 紫荊識友于 石竹入湯液 雖謂之備德行兼才能可也 備德行兼才能者 與之處一堂 豈非吾益友乎 若曰猶未足以當梅兄之標格 吾不信也 姑存此以待博雅君子之能有辨者焉. 菊雪中意 松篁霜後色 遂與歲寒翁 同成帶礪約.

를 조성해 내고 있다.

석문 정영방은 <瑞石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석문은 못을 파자 옥같은 상서로운 돌이 나타났다. 서석지의 주인은 연꽃이다. 정영방은 서석지를 다음과 같이 형상화 하고 있다. 원림은 문학과 예술을 수반하게 한다.

瑞石池

天生白玉墀	하늘이 白玉으로 바닥을 이루니
地獻青銅鑑	땅은 청동 거울을 바치네
止水澹無波	明鏡止水 물결 하나 없으니
方能該寂感	바야흐로 고요하게 감상할 수 있구나

서석지의 돌은 속에 문채가 나고 겉은 희다. 인적이 드문 곳에 감추어져 있으니 마치 정숙한 여자가 貞潔을 지켜 스스로 보호함과 같고 또 마치 은둔한 군자가 德과 義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같다. 그 가운데 보존된 바, 귀한 실물들이 있으니 상서롭다고 이를 만하지 않는가? 혹 그것이 진짜 옥이 아니라고 싫어하는 자가 있더라도 이는 그렇지 않다. 만약 과연 옥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찌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얻을 수 있다면 능히 기이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옥과 비슷하거나 옥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 이르러서 부질없이 美名을 흠쳤으나 사용하는데 알맞지 않다. 도리어 졸박한 자가 그 순박함과 어리석음을 지키고서 이름을 흠친 해가 세상을 속임이 없는 것만 못하니 또 어찌 죽히 상서로움이 되리오!¹⁸⁾

정영방은 기이한 돌에 대해 상서로운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상서로움은 맞지만 그 안에는 파라독스가 있다. 연못 안에는 60여개의 돌이 있는

18) 瑞石池 ; 石內文而外素 藏於人迹罕到之處 如淑人靜女操貞潔而自保 又如遜世君子蘊德義而不出 其中所存 的然有可貴之實 可不謂之瑞乎 或有嫌其非眞玉者 此則大不然 若果玉也則吾其可得而有諸 有之而能不爲奇裕者乎 至如似玉而非玉者 徒竊美名而不適於用 反不如拙者之守其純愚而無欺世盜名之害也 又安足爲瑞乎

데 이를 瑞石이라고 부른다. 이중 19개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玉成臺, 尙綱石, 落星石, 調天燭, 垂綸石, 魚牀石, 觀瀾石, 花蘂石, 祥雲石, 封雲石, 爛柯岩, 通眞橋, 分水石, 臥龍巖, 濯纓盤, 碁坪石, 僊遊石, 灑雪硯, 戲蝶巖 등이다. 정영방은 이들을 모두 형상화하여 <敬亭雜詠 三十二絶>안에 포함시켰다. 성리학자들의 시의 특징은 중의법이 많다. 이러한 명칭은 정영방의 학문과 인생관은 물론 은거생활의 이상적 경지와 자연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심취하는 심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성리학의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다.

濯纓盤

明瑩水底石	옥 빛나는 강바닥의 돌
平鋪勝玉盤	평평한 모양 玉盤보다 낫구나
塵纓來一滌	속세의 갓끈을 한 번 씻으러 오면
不必服神丹	반드시 神丹을 복용할 필요는 없으리

정영방은 퇴계의 시 <탁영담>을 의식하면서 <탁영반>을 지었다. 이 시에 <탁영반>은 “난가암 왼쪽에 있으며 곧 물이 빠지면 드러나고 물결이 불으면 잠긴다.[在爛柯之左水落則波漲則沒]”라고 기록해 두었다. 이것은 퇴계의 <도산잡영·탁영담>에서 읊은 반타석이란 시를 연관시켰다.

퇴계는 굴원의 초사 중에 「어부사」를 애호하였다. 정영방 역시 퇴계를 열심히 추적하였다.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을 것이고,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7)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을 것이라

초사 어부사에서 이것을 취하여 ‘濯纓’이란 시어를 점철성금 하였다. 정영방은 퇴계 선생의 <盤陀石> 시를 의식하였다.

黃濁滔滔便隱形	황류가 몰아칠 때는 물속에 잠기고
安流帖帖始分明	맑은 물이 흐르면 드러난다네
可憐如許奔衝裏	가련토다 저 소용돌이 물속에서도
千古盤陀不轉傾	천고의 반타석은 꿈쩍도 않는 구나

정영방은 퇴계의 이시를 생각하면서 물이 빠지면 드러나고 물결이 붙으면 잠기는 돌을 보고 탁영반으로 이름 지었다. 퇴계의 탁영담이 서석지에 형상화 되었다. 석문 정영방은 서석지의 돌에다가 성리학적 시각에서 다양한 형상을 가탁하고 있었다.

戲蝶巖

<회접암>은 동쪽 가에 花蘂巖과 서로 마주보고 있다.[在東邊與花蘂相對] 나비 모양이 나오는 서석인 모양이다. 정영방은 여기에 장자의 호접몽을 형상화 시키고 있다.

翩翩一粉蝶	훨훨 나는 한 마리 고운 나비
如欲趁花開	꽃 피는 곳 좇아서 날아가려는 듯
莫化蒙莊去	제발 변해서 장자의 꿈속에 가지 말아라
重令世道隳	세상의 옳은 도리 다 무너지게 하는구나

서석의 형상에서 나비모양을 떠올리고 그 바위 이름을 戲蝶巖이라고 하였다. 그 주변의 바위 형상을 花蘂巖이라고 하여 꽃술의 형상을 따서 나비와 꽃으로 연결시켰다. 정영방의 기발한 상상력이 서석들의 형상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한 마리 나비가 꽃피는 곳으로 날아가려는 듯하다는 스토리가 형성된다. 서석들은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정적인 형상에서 생명력을 얻으며 동적인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시의 후반부에서 ‘장자의 호접몽 속으로 날아가서 유교의 도리를 해치지 말라’고 한 표현에서

절묘한 상상력은 유교를 향하고 있다. 정영방은 서석지의 기이한 바위 소품 속에 온갖 형상들을 형상화 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총동원시켜서 예술의 정취를 추구하고 있다. 서석지는 성리학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觀瀾石은 화예석 위에 있다[在花藥石上]

長出層階下	긴 것은 층계 아래에 나와 있고
高居衆石中	돌들 가운데 높이 솟아 있네
觀瀾時有得	물결을 보는 것도 때를 맞춰야 하니
欲說意無窮	말하고자 하는 뜻은 끝이 없구나.

觀瀾이란 이름은 『孟子·盡心章』 觀水有術 必觀其瀾에서 취했다. 물을 관찰하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관찰해야 한다. 이것은 도의 근원을 관찰하라는 것이다. 물은 어디에서부터 흘러 강을 이루는가? 깊은 산속의 웅달샘에서 부터이다. 물은 도저히 넘지 못할 높은 곳을 만나면 물은 돌아 흐를 줄 안다. 정영방은 서석지 속에서 맹자의 觀瀾의 모양을 찾아 형상화 하였다. 그는 이것을 觀瀾石이라 명명하고 맹자의 진심장에 나오는 觀瀾을 상상하니 말하고자 하는 뜻은 끝이 없다고 있다. 정영방은 서석지 속에서 끊임없이 성리학과 소품 속에서 숨은그림찾기를 하고 있다.

分水石

水流雖分二	물 흐름이 비록 둘로 나뉘어도
其源一而已	그 근원은 하나일 뿐이다
此理苟能知	이 이치를 진실로 알 수 있으면
當如參也唯	당연히 曾子의 대답과 같으리

정연방은 서석지의 바닥에 있는 기이한 바위에 이름을 지으면서 성리학에 심취해 있다. 드디어 서석지 서석들 속에서 성리학을 형상화 하는 일에 골몰하다가 성리학의 숨은그림찾기 속에서 상서로운 것을 찾았다. 西銘은 理一分殊를 밝힌 것이다. 퇴계의 성학십도 제2도가 서명도이다. 그리고는 分水石이라고 기발하게 이름 지었다. 이것은 이황이 ‘서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성리대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주자의 이런 말도 인용했다. 서명의 앞부분은 바둑판같고, 뒷부분은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 같다. 이 말에서 정연방은 바둑 두는 형상을 찾아내어 ‘碁坪石’이라고 명명하였다. 정연방은 성리학의 이치를 서석의 암반에 돋아 있는 소품에 새기고 있었다. <서명>은 이가 하나이지만 나누어진 것은 다름을 설명한다. 理一 仁을 알기에 仁을 행하게 되는 것이요, 분수임을 알기에 義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일분수’는 송명유학의 핵심개념에 속한다. ‘이일’과 ‘분수’의 통일적 실현이 송대유학이 지향하던 이념이었다. ‘이일분수’ 개념은 유학의 존재론과 윤리설을 설명하기 위하여 송명의 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였으며, ‘이일분수’ 사상은 우주를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전체가 하나이지만 전체 속에서 각 개체들은 자아의 독자적 개성을 가진다는 의미다. 모든 사물의 개별적인 理는 보편적인 하나의 이와 동일함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세계를 관철하는 보편적인 원리와 구체적·개별적인 원리 사이에 일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물이 理法의 구현이고 그것이 一理로 귀결한다는 불교의 화엄사상을 근거로, 유교적 도덕으로 재정립하여 만든 성리학 이론으로서 程頤와 朱熹가 그 이를 확립하였다.

모든 사물은 하나의 理를 지니고 있으나 개개의 사물·현상은 상황에 따라 그 이치가 다르게 나타난다(分殊). 개별적 이를 초월하는 보편적 이, 즉 太極은 ‘理一’로서의 ‘統體一太極’이며, 개개의 사물에 내재해 있는 개별적 이, 즉 性是 ‘分殊’로서의 ‘各具一太極’이다.

이일분수는 宋代에 程頤가 창출한 것으로 理一이란 본체로서의 태극을

말하고, 分殊란 현상계에 존재하는 각각의 事物마다에 깃들여 있는 理를 뜻한다. 이이의 이일분수에서 이일의 이는 본디 차별이 없는 것이나, 분수의 이는 천차만별하여 가지런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것은 이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氣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현상계에 존재하는 다양성은 기의 작용과 변화 때문이고 그 변화는 이의 主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이일분수설은 理通氣局說과 함께 율곡 이이의 理氣論의 핵심이다.

이 외에도 서석지의 서석군 속에는 약 60여개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찾는 열쇠는 성리학에 있었다.

서석지는 자연석의 水石으로 환상적인 추상미를 발산하는 것으로서 시정이 함축되어 있다. 서석지의 기이한 형상은 정서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누워있는 큰 정원석으로 온갖 형상미를 발산해 내는 서석지는 황홀하다. 이것은 인간의 심성과 대자연의 깊은 이치를 갖가지로 이해하려는 성리학적 미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敬亭雜詠 三十二絶>은 허다한 원림의 시구들이 세를 왕성하게 하고 있지만, 서석지를 중심으로 추구한 정영방의 원림문학의 절정인 <敬亭雜詠 三十二絶>은 성리학을 기초로 예술을 추구한 척도를 얻었고 걸출한 기백이 생동하는 호탕한 표현이 살아 숨 쉰다. 이것은 성리학을 추구했던 조선 선비들의 정원 중에서도 압권이다. 서석지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의 원림으로 조선 원림의 심연이요 보고이다.

<敬亭雜詠 三十二絶>이 서석지를 중심으로 한 내부의 원림이라면 <臨川雜題十六絶>은 자양산을 중심으로 한 외부의 원림이다. 그 중에 하나인 대박산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大朴山

大朴未消散

融爲一巨嶽

크고 순박함이 사라져 흩지 않고

우뚝 솟아나 하나의 큰 산악이 되었네

或能產英豪	언젠가는 영웅호걸이 태어날 수 있으니
回我三韓俗	우리 三韓 풍속은 돌아오리라

정영방 원림의 주산인 자양산의 조산으로 청기현의 동쪽에 있다, 대박은 옛날의 이름이다[紫陽祖山在靑杞東大朴是舊號]라고 하였다. 풍수를 보는 법 중에 ‘迴龍顧祖’란 용어가 있다. 풍수에서 산을 보는 법은 시조 산을 중심으로 산맥을 따라내려 오면서 보는 법이다. 시를 보는 법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항상 제목에서부터 쪽 내려오면서 보아야 한다. 정영방은 대박산을 조산으로 규정하고 원림의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대박산을 자양산과 연결시키며 내부 원림과 외부 원림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는 그 태초의 순박함을 강조하고 있다. 언젠가는 영웅호걸이 태어날 수 있고 우리 삼한의 풍속은 돌아오리라는 민족문화적인 상상력을 엿 볼 수 있다. 이는 잇단 호란으로 민족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요구되던 시대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立石

六鰲骨未朽	여섯 마리 자라 뼈가 아직 썩지 않고
撐柱五雲層	다섯 길 층계 위에 기둥 되어 버티는 양
杞婦獨癡絕	杞梁의 처 홀로 어리석게 울부짖나
謾憂天或崩	부질없이 혹 하늘이 무너질까 근심하네

입암은 두 강이 합쳐지는데 있으며 높이가 10여 길이다.[在合江高十餘丈], 이 입암은 이 지역의 수많은 시인들이 시를 읊었다. 그러나 정영방처럼 읊은 사람은 없었다.

六鰲는 다섯 仙山을 떠받치고 있다는 여섯 마리의 큰 자라를 말한다.杞婦는 齊 杞梁의 처로서, 남편이 전쟁에서 죽자 그 시신을 맞아 성 아래에서 10일 동안 통곡을 하니 성이 무너졌다. 눈물로 성을 무너뜨렸으니, 혹 입암이 무너지면 어쩌나 걱정하는 것이 杞憂의 고사와 연결시켰다. 정

영방은 신화적 요소를 취해 와서 입암을 먼 원림의 일부로 끌어오고 있다.

이 외에 대박산으로부터 뻗어 내린 集勝亭, 芙蓉峯, 紫錦屏, 青杞溪, 嘉芝川, 骨立巖, 超僊島, 磨天壁, 文巖 등, 임천의 16경을 절구로 읊어 먼 원림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이 임천 16경은 “대박산과 다 무리가 되어 있는데 수 십리가 된다. 또 이르러 가는 것은 山水의 근원을 비추어 보고자 함이다.”라고 하였다.

정영방은 자기의 원림인 경정과 서석지를 배회하며 향유한 것이 그의 시에 드러난다.

<月夜 自敬亭 至栢堂 示申汝涉楫>

(달밤에 경정에서 백호서당까지 걸으며 여섯 신증에게 보였다)

夜出敬亭池	밤에 敬亭의 瑞石池를 나오니
夜景更奇絶	밤의 경관이 더욱 기이하고 절경이구나
歸來心不忘	귀거래 마음 잊지 못하여
猶說清漪月	지금도 맑은 물결의 달빛을 말하노라

정영방은 이 원림 안에 정자를 짓고 이 지역의 선비들과 교류하며 학문을 연구하고 대자연에 취해서 강호가도를 마음껏 구가하면서 한 시대를 살았던 훌륭한 학자 겸 문인이었다.

정영방의 시에 대하여 權相一은 “매우 淡古하고 唐人의 風格을 체득하였다.” 하였고, 南克寬은 “詩體의 氣象은 高尚하고 玄妙하여, 그 興은 심오하고 원대하니 진실로 子雲이라야 子雲의 詩를 알 것이다.”라고 했다. 대저 詩란 性情에서 나왔으니, 『시경』·『淸廟之什』처럼 대부분 우아하고 뛰어난 선비들에 의해 지어 진 것인즉 지금 公의 詩는 어찌 근본이 되는 바탕이 없이 그렇게 이를 수 있었으랴¹⁹⁾ 하였고, 鄭彦忠은 “무릇 詩는 470

19) 『石門先生文集』, 卷一, ; <石門先生文集序(鄭彦忠)>; 夢巖之評曰 體氣高妙 興寄

여 수나 되고 文은 18편인데 문장은 자못 瞻麗하여 가히 읊을만하며, 詩는 더욱 淸絶하여 격조가 있었다. 그의 시는 唐詩의 경지에 나아갔으며, 운율이나 氣勢 같은 말단에 힘쓰지 아니했다. 그의 시는 宋나라 詩風이 스며있으면서도 사실에 얽매이는 누습에 빠지는 일은 없었다. 그의 오언 절구는 훌륭하여 康樂 謝靈運과 長吉 李賀의 風致가 있다. 그가 완상한 것은 석문의 빼어난 자연경관에서 감발한 것이며, 그의 풍자는 석문의 風泉과 서로 和答한 것이니 근세에 문장을 하는 선비들이 거의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²⁰⁾라고 했다.

석문 정영방의 원림과 시세계에는 품격과 격조가 있었으며 성리학의 미의식이 앙금처럼 녹아서 영롱한 미를 발산해내고 있었다.

V. 결론

이상으로 石門 鄭榮邦(1577년 ~ 1650년)의 원림과 문학세계를 살펴보았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선조시대의 임진왜란, 광해군 시대의 亂政과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조선 역사의 대 혼란기였다. 잇단 왜란은 조선을 초토화 시켰으며 조선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이루어 놓은 높은 정신세계와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을 잔인하게 파괴시키고 약탈해 갔다. 이 전쟁들은 조선 선비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대내외적으로 민족사적 자존심을 실추시켰다. 이 왜란들은 조선 정치사상의 근간이었던 성리학적 세계관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그 이후부터 조선의 선비사회는

深遠 信乎以子雲而知子雲者也 夫詩出性情 淸廟之什 多作於峩峩奉璋之士 則今公之詩 豈無所本而然哉

20) 『石門先生文集』, 卷一, ; <石門先生文集序(鄭彥忠)>; 凡爲詩四百七十餘首 文十八篇 文頗瞻麗可誦 而詩尤淸絶有調 有唐之境而不驚聲氣之末 參宋之情而不墮故實之陋 其五言絶大有康樂長吉之致 翫之與石門秀色相發 諷之與石門風泉相答 有非近世操觚之士所可幾及也

공리공론으로 흐르는 성리학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의 길을 모색했으며 왜란 이후 황폐된 향촌사회의 재건과 민족정기의 정통성 계승을 위하여 조선의 선비들에게 민족적 각성이 심각하게 요구되는 때였다. 석문 정영방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성리학의 올바른 가치 정립과 학문계승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였다.

그가 자연에 몰입하여 강호가도를 구가한 서석지는 우리나라 삼대 정원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그가 구가한 강호가도와 자연미의 발견은 당대 유럽들의 주목을 받았다.

石門 鄭榮邦(1577~1650) 선생은 당대 성리학을 공부했던 영남의 유명한 학자로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원림을 경영하며 강호가도를 추구했던 고결한 학자였다.

그가 병자호란을 피해 영양 임천으로 은거하여 원림을 조성하고 축조한 그의 서석지는 문학과 예술을 합시 시킨 위대한 유가의 정원이자 원림의 보고이다.

이 서석지는 梁山甫(1503~1557)가 경영한 담양의 소쇄원, 尹善道가 甫吉島에 경영한 세연정의 부용원과 함께 우리나라 사대부들의 삼대 정원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원림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정영방은 혼란한 시대의 번민을 물리치고 원림에 몸을 맡겨 자연과 교감하며 성리학적 사상으로 혼란을 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석지 바닥의 암반 위에는 기이한 형상의 소품들이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정영방의 원림과 문학은 성리학의 예술적인 심미안으로 본 형언 못할 강렬한 인상과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 정영방의 시는 서석을 형상화하여 서석지의 추상성을 추구한 묘취가 있다.

정영방이 이 원림을 바탕으로 추구한 원림문학의 절정인 <敬亭雜詠 三十二絶>은 성리학을 기초로 예술을 추구한 척도를 얻었고 걸출한 기백이 생동하는 호탕한 표현이 살아 숨 쉰다.

<敬亭雜詠 三十二絶>이 서석지를 중심으로 내부의 원림이라면 <臨

川雜題十六絶>은 외부의 원림이다. 서로 표리를 이루며 완성된 이 시가들은 이것은 성리학을 추구했던 조선 선비들의 원림을 읊은 시가 중에서도 압권이다. 서석지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의 원림으로 조선 원림의 심연이요 보고이다.

이 원림 안에 정자를 짓고 이 지역의 선비들과 교류하며 학문을 연구하고 대자연에 취해서 강호가도를 마음껏 구가하면서 한 시대를 살았던 훌륭한 학자 겸 문인이었다.

영남의 강호가도를 구가한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의 뒤를 이어 石門 鄭榮邦이 또 자연에 묻혀 영남학맥의 강호가도를 이었다.

石門 鄭榮邦, 그 또한 이 시대를 점유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벗어나 자연의 진경에 몰입하여 강호의 경치를 구가하면서 성리학의 도를 추구하려는 새로운 사림이었다.

원림은 정자를 향하여 있고, 정자는 원림의 경관요소들을 끌어들인다. 그의 원림의 세계에는 성리학의 이상세계가 들어 있고, 학문에 대한 애정이 들어 있으며, 수기치인의 반성과 수양의 미학이 들어 있었다. 서석지의 자연석에 기이한 형상들을 유추해 내는 그의 시각에는 심미적인 감수성이 넘쳐나며, 서석군의 형상미를 창출한 미의식에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쳐난다. 석문 정영방의 원림에는 오묘한 성리학의 理趣가 앙금처럼 녹아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다. 정영방은 뛰어난 상상력과 기발한 창의력을 소유한 학자 겸 문인이었고, 타고난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으로 우리 문학사에 우뚝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參考 文獻〉

- 『石門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 조운제, 『조선시기사강』, 동광당서점, 1939.
- 신두환, 「16世紀 朝鮮의 『朱子大全』 刊行과 그 學問的 動向 研究」, 『남명학연구』 제52권,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6.
- 민경현, 「서석지를 중심으로 한 석문 임천정원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1권 제1호, 한국전통조경학회, 1982.
- 김동훈, 김용기, 김두규, 「瑞石池園의 造營背景과 空間構成에 關한 研究」, 『한국정원학회지』 제21권 제4호, 한국정원학회, 2003.
- 유정훈, 「석문 정영방의 문학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최재남, 「石門 鄭榮邦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제10권, 한국한시학회 2006.
- 洪在佺, 「壬辰遭變事蹟考」, 『인문과학연구』 제1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8.
- 길승호, 양병이, 「영양 서석지원(瑞石池園)의 경관요소를 통한 외원 규모 추정 및 프랙탈 구조(Fractal Structure)」 『한국조경학회지』, vol.41, no.5, 한국조경학회 2013. pp.57-67.

Abstract

*A study on the Garden and literature of Seogmun(石門),
Jeong-yongbang(鄭榮邦).*

Shin, Doo-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Garden and literature of Sugmun(石門), Jeong-yongbang (鄭榮邦) in The Choseon(朝鮮) Dynasty period. Seogmun, Jeong-yongbang(1577~1650) lived during the great period of Joseon's history, includ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during the Joseon Dynasty, King Gwanhaegun's family name, Injo Banjeong, Jeong Myeo-horan, and Byeongjahoran.

He was a new man who wanted to escape the chaotic world and embrace the scenery of the landscape and pursue the spirit of Neo - Confucianism.

His world included the ideal world of Neo-Confucianism, affection for learning, and the spirit of self-examination and culture. His vision of extrapolating strange shapes on the natural stone of Seoseok-ji(瑞石池) is filled with aesthetic sensibility, and his imagination and creativity are abundant in the consciousness of the Seoseok(瑞石), which created the character. In the garden of Seokmun Jeong Yeong-bang, the mysterious Neo-Confucianism melts like a sediment and looks for a bright light

His poetry is about 470 volumes and his writings are 18, and his poems are so beautiful that he can recite them, especially the style of Chosa, which is peculiar to the region. The ethnographic view of the book provides a new imagination for our literature. The poem had a clearer tone. His poetry reached the stage of the Tang Dynasty and did not work for the underlings of rhythm or spirit. His poems were infused with the spirit of Songnara poetry, but he never fell into a fact-bound rage. His wordless speech is beautiful. He was impressed by the outstanding natural beauty of Seokseokji, and his garden and literature were filled with the beauty of Neo-Confucianism.

* Professor, Andong university. / E-mail : ilovestudent@hanmail.net

【Keywords】 <Seogmun, Jeong-yongbang>, <Seoseok-ji(瑞石池)>, <Sung Confucianism>, <Garden>, <literature>.

투고일 : 5월 25일, 심사완료일 : 6월 11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